



가을철 잡초 꽃가루 알레르기

우리들 내과 김원영 원장



비염·결막염·천식 유발 ... 원인 찾아 치료를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도 이제는 아스라한 옛사랑의 그림자 같다. 날마다 오늘도 덥다고 외치던 일기예보는 일교차가 심하니 옷차림에 신경 쓰고 감기 조심하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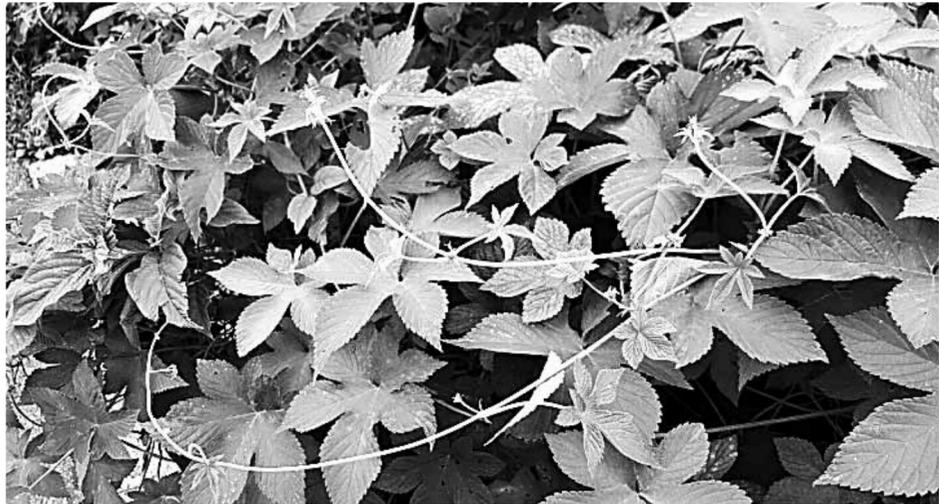
김현철(35)씨는 별초를 하고 온 후 재채기 콧물이 심하고 눈도 가렵다. 저녁엔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린다. 5~6년 전부터 가을 찬바람이 불면 이 증상은 어김없이 나타났고 올해 들어 더 심하다. 바람 속에 뭔가 숨겨 있을까? 심한 감기가 걸렸다고 생각해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다. 그러나 증상은 좋아지지 않고 약 때문인지 줄음이 심하고 입도 마르고 기운도 없다. 약으로 안되나 보다 주사라도 한대 맞아야 겠다고 동네의원을 찾았다.

의사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묻고 숨소리를 들어 본 후 감기는 아닌 것 같다고 한다. 감기는 치료하지 않아도 10일을 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또 정년상 휘파람 소리(천명음)가 들린다면 천식일 수 있다고 한다. 주사를 맞는 대신 기관지 확장제를 들이마시는 치료를 받았다. 흡입치료를 한 후 의사는 숨소리가 깨끗해 졌다며 가래 때문에 그르렁거린 것이 아니라 기관지가 좁아져서 그랬다며 먹는 약과 입으로 들이마시는 흡입제도 처방해 주었다. 약은 효과가 있어 콧물도 줄고 저녁에 가래 끓는 소리는 사라졌다. 그러나 눈 가려움증이 좋아지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기침이 나와 일상생활이 힘들었다.

◇알레르기 환자, 전문클리닉 진료 = 동네의사는 알레르기 전문클리닉을 추천해 주었다. 알레르기 클리닉에서는 항상 9월초부터 증상이 있는지, 애완동물은 키우는지, 침대도 쓰는지 물어본다. 눈, 코, 입 안을 들여다보고 숨소리를 들어 본 의사는 가을철 잡초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천식이라고 한다.

가슴과 얼굴 엑스레이사진, 폐기능·기도가역성 검사, 알레르기 원인(알레르겐)을 찾는 피부단자 검사를 했다. 가슴 사진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얼굴 사진에 만성부비동염(축농증) 소견이 보인다. 처음 해보는 폐기능 검사는 쉽지 않다. 숨을 헛헛 들이마신 후 얼굴이 벌개지도록 숨을 내뿜어야 한다. 기관지확장제를 들이 마신 후 다시 한 번 폐기능 검사를 했다. 처음 보다 훨씬 더 많은 숨을 뱉을 수 있었다.

폐기능·기도가역성 검사는 천식을 진단하는데 간단하면서도 꼭 필요한 검사다. 등에 알레르기 원인물질 55가지를 떨어뜨린 후 두드러기가 생기는지 살펴보는 피부단자검사에서는 환삼덩굴 반응이 심하게 나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범인 환삼덩굴.

환삼덩굴·돼지풀·쑥·질경이 등이 주원인

알레르기 약, 증상 없어도 꾸준히 사용해야

계절성 질환 꽃가루 날리기 전 미리 예방을

왔다.

◇환삼덩굴 꽃가루 주의해야=원인 찾는 검사는 환경관리와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기본적인 검사다. 5살 아래의 아이나 약을 먹은 사람들은 유니캡(unicap)이라는 혈액검사를 한다. 6가지 알레르겐 검사만 보충이 되므로 원인 알레르겐 선정에 고심을 해야 한다.

환삼덩굴(Humulus japonicus)은 삼과(科) 환삼덩굴속(屬) 한해살이풀로 '환'이라는 연장처럼 날카로운 잔가지가 있고 잎이 삼잎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7~10월에 황록색 꽃이 암수 따로 핀다. 요즘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 공터나 하천가에 바람에 흔들리면 꽃가루(눈에 보이지 않는다)를 날리는 수꽃을 흔히 볼 수 있다. 단 풍나무와 같은 손바닥 모양 잎이어서 한 번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줄기에 가시가 있어 잡초가 우거진 곳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손과 팔에 상처를 입게 된다.

같은 환삼덩굴속(屬) 식물로는 맥주 원료로 쓰이는 홉(hop, Humulus lupulus)이 있고 같은 삼과(科) 식물로는 환각성이 있는 대마(marijuana, Cannabis sativa)가 있다. 돼지풀, 쑥과 함께 가을철 잡초

가루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으로 최근 병위를 떨치고 있다.

천식 및 알레르기 클리닉 우리들내과 김원영 원장은 가을철에 생기는 알레르기 질환인 비염·결막염·천식은 찬 공기가 아니라 환삼덩굴, 돼지풀, 쑥, 질경이, 명아주 등 잡초의 수꽃에서 날리는 꽃가루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알레르기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예민해가 없는 특정 알레르겐에 면역과민 반응을 일으켜 생긴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면역력을 키운다는 근거 없는 치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원인 찾는 검사부터 받아 보라고 권유한다.

◇원인 찾아 치료해야 효과=김현철(35)씨는 동네의원에서 처방받았던 흡입제를 잘 사용했는지 점검받고, 결막염에 넣은 안약과 비염에 쓰는 비액을 추가로 처방받았다.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할 때 먹는 약보다 국소적으로 뿌리는 약이 효과가 훨씬 뛰어나고 부작용도 적다. 그러나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교육이 필요하다.

국소치료제 사용에 서투른 환자들은 호

과가 떨어지는 약만 고집해 치료가 더디기도 한다. 때론 결막염이 다른 알레르기 질환보다 고통이 심하다. 가려움증이 심해 너무 눈을 비비다 보면 각막에 손상을 입혀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알레르기 약은 증상이 없어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써야 한다. 특히 계절성 알레르기 질환은 치료시 꽃가루가 본격적으로 날리기 일주일 전 증상이 없을 때부터 국소치료제를 쓰기 시작해 한 달간은 사용해야 한다.

최근 3세대 먹는 알레르기 약들은 줄음이나 몸을 처지게 하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임신부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일주일 뒤에 증상이 거의 없으나 병원을 다시 찾은 현씨는 국소치료제를 의사 앞에서 직접 사용해 보였다. 그리고 내년에 증상이 없어도 8월 15일 넘어 8월 말에 되기 전에는 미리 병원에 와야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알레르기 질환은 불치병도 난치병도 아니라고 우리들내과 김원영 원장은 강조한다. 원인을 알고 근거가 확실한 약으로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전에 같이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오전에 바깥 활동을 금하지도 않고, 일상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인 체질을 바꿔 알레르기 관용을 유도하는 면역 요법도 해 볼 수 있다. 축제의 계절 가을을 누구든지 즐길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녹내장·눈성형·백내장 전문

'눈에빛안과' 양산동에 문열어

전남대 의과대학 출신

김황균·문형진 대표원장



김황균 원장



문형진 원장

녹내장·눈성형·백내장 전문 안과인 '눈에빛안과'(대표원장 김황균·문형진)가 최근 광주 북구 양산동에 문을 열었다.

눈에빛안과 의료진은 전남대병원 안과 및 밝은광주안과 원장 출신으로 수술 및 진료 경험이 풍부하다. 눈에빛안과는 백내장, 녹내장, 안질환 등 대학병원급의 '토탈 EYE 클리닉' 역할이 가능하며 내과·안정형 등 특화된 검사·수술시스템을 구축해 부작용 0%에 도전하고 있다.

김황균·문형진 대표원장은 "안전중심과 고객중심 등 사람을 중심에 두고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는 안과를 만들겠다"며 "지역민들이 안과진료를 받기 위해 멀리 나가야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고 수준높은 진료를 통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국립나주병원, 지역 주민 정신건강 공개 강좌

다음달 5일 콘텐츠진흥원서

국립나주병원(원장 윤보현)은 오는 10월 5일 오후 3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정신건강 공개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강좌는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이주기업 직장인들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행복한 인생을 위한 마음건강 10계명'이라는 주제로 강북산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겸 기업정신건강연구소장인 '신영철'박사의 특강으로 진행된다.

국립나주병원은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주기업 대상 스트레스 관리 등 직장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

고 있으며, 특히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을 통한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내 직장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개강좌 참가신청(10월4일까지)은 이 메 일 (leejini21@korea.kr)이 나 FAX(061-330-7763)를 통해 가능하고, 자세한 방법은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나 기업정신건강증진계(061-330-7767)로 문의하면 된다.

윤보현 국립나주병원장은 "이번 공개강좌를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지역민들의 행복한 삶에 일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남구의사회, 아름다운 나눔행사

광주 남구의사회(회장 서정성)는 지난 24일 (재)아름다운가게 봉선점(운영위원장 김윤수)과 함께 아름다운 나눔행사를 가졌다. 남구의사회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행사는 아름다운가게 봉선점에서 270여 회원들의 재사용물품 1300여점을 모아 150여만원의 수익을 냈다. 이날 수익금은 다문화 가정 친정 보내주기 사업에 지원된다. <남구의사회 제공>

지리산 온천지구 내, 호텔급 모텔, 사정상 매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다용도 개발 가능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감정가 - 14억 (2016. 7월 감정)
- 1순위(은행) - 6억 3천만원 대출
- 2순위(개인) - 1억
- 매매 - 협의,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